

울산 도시지역의 빈혈과 철 결핍 여자 중학생 소비자의 공주병 특성과 체중

서정희 · 홍순명
아동가정복지학전공 · 식품영양학전공

<요약>

이 논문은 울산광역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빈혈과 철결핍 여자 중학생 소비자 123명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공주병의 정도를 알아보고, 공주병의 정도와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주병은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성취에 대한 지나친 평가의 4개 차원을 조사하였다. 울산 도시지역의 빈혈과 철결핍 여자 중학생들은 외모와 성취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중간 정도이고, 외모와 성취에 대한 평가 수준은 중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주병의 4개 차원들은 모두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간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성취에 관한 공주병의 두 차원은 체중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신체중량지수 및 이상체중에 대한 체중의 백분율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Vanity traits and weight of middle school girls who have anemia or iron deficiency

Seo, Jeonghee · Hong, Soonmyung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 Dept. of Food & Nutri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level of 4 vanity constructs and to

analyse the correlations of vanity constructs and weight, BMI, PIBW. The subjects were 123 middle school girls who have anemia and iron deficiency in Ulsan city area. Vanity has four trait components: a concern for physical appearance, a positive(and perhaps inflated) view of physical appearance, a concern for achievement, and a positive(and perhaps inflated) view of achievement. The level of concerns for physical appearance and achievement is in the middle point of the scale. The level of positive view of physical appearance and achievement is in a little below of the middle point of the scale. Four components of vanity are positively inter-correlated. Weigh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 concern for physical appearance and a positive view of physical appearanc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 concern for achievement, and a positive view of achievement. But BMI and PIBW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four constructs of vanity.

I. 서 론

절약, 자제, 노동과 근면을 강조했던 산업자본주의가 쇠퇴하고 여가와 소비를 강조하는 후기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소비문화 트렌드의 하나는 몸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몸의 표현은 그 사람의 내적 기질과 태도의 재현물로 인식되고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몸의 치수와 형태에 부여된 사회적 가치들과 연결된다(쥘링, 1999).

이렇게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주병(vanity)이 소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Roper Starch Worldwide가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공주병 특성이 강한 국가는 베네수엘라이고, 그 다음으로는 멕시코, 러시아, 터키가 뒤를 따르고 있고, 미국은 9위이고, 한국은 1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Economist, 2000). 즉 공주병은 고도로 산업화된 서구에서 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까지 세계적인 특성이 되었다.

외모를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화장품, 옷, 귀금속 등 외모 가꾸기를 위한 소비재 시장 뿐 아니라 살빼기 산업과 성형수술 등과 같은 외모관리산업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의 경우 12세 이전부터 소녀들은 마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소년들은 근육질이 되기를 원하며, 외모에 대한 주의집중은 아동기 초기부터 이루어진다고 Guber(1987)는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나 TV의 특집프로그램에서 집중취재한 내용을 보면 다이어트를 지나치게 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거식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 특히 사춘기 소녀들은 신체적으로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살이 오르면서 심리적으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Hawkins, 1983), 성호르몬이 변화, 조절되는 시기에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면 정상적인 체중조절 기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Rodin 등, 1985), 산후와 폐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철을 불충분하게 섭취하게 하고, 철의 체내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철의 급원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육류, 생선, 가금류, 비타민 C 등의 섭취부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Choi 등, 1997)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체중과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철 부족이 비율이 높았다. 철결핍과 빈혈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철결핍과 빈혈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공주병의 정도와 특성을 밝히고, 공주병과 체중과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지나친 외모가꾸기 이데올로기가 여자 중학생 소비자의 건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울산광역시는 도시적인 특성이 강한 울산과 농촌적인 특성이 강한 올주군이 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영양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공주병 특성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울산의 도시지역에 소재한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주병의 개념과 차원

공주병/왕자병은 외모를 강조하는 미국문화에서 특히 잘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미국의 수많은 TV 프로그램, 잡지, 광고에는 아름다운 여성과 잘 생긴 남성들을 계속해서 방영하고, 이들 매체는 아름다운 여성과 잘 생긴 남성의 이미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 Appadurai(1990)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매체는 전 세계의 소비자로 하여금 우주적인 소비문화에 참여하게 한다고 하였다. Walker(1996)도 미국의 MTV는 1996년에 68개국에서 230백만 소비자들이 시청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소비문화를 창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에서 공주병/왕자병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고, 인도, 중국, 미국, 뉴질랜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도 검증되었다. Netemeyer, Burton, Lichtenstein(1995)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공주병/왕자병은 (1)외모에 대한 관심, (2)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3) 성취에 대한 관심, (4)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등의 4가지의 뚜렷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신체적 공주병/왕자병 차원과 성취적 공주병/왕자병 차원으로 개념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외모에 관한 공주병/왕자병: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는 긍정적인 평가

성취에 관한 공주병/왕자병: 개인적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 또는 긍정적인 평가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집단과 비학생집단으로 조사대상자를 구분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Durvasula, Lysonski 및 Watson(2001)은 Netemeyer, Burton, Lichtenstein(1995) 등이 개발한 공주병/왕자병 척도가 문화가 다른 지역인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중국, 인도, 뉴질랜드 및 미국의 젊은 성인 4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원, 요인구조,

내적 일관성, 차별 타당도 및 분산행렬이 유사하였다.

2. 외모에 관한 공주병과 성취에 관한 공주병의 관계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에 그들의 몸을 연결하는 의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기 근대사회에서는 의미있고 신뢰할만한 자아정체감은 개인들이 특정한 몸관리 양식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채택하면서 형성된다(임인숙, 2002). 몸이 곧 그 사람의 정신적 자질을 대변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회에서 허리 사이즈와 몸무게가 평균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절제력이 부족하고 자기파괴적이고 태만하고 아둔하고 멍청하고 늙어보인다 등 주로 부정적인 평가가 따른다(김은실, 2001).

외모에 관한 공주병과 성취에 관한 공주병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자명과 이명희(1994)는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외모, 의복 및 신체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과업을 수행하려는 의욕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양진과 강혜원(1992)도 여고생의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 학업성취도 및 사회존중감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외모에 관한 공주병은 성취에 관한 공주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3. 공주병에 관한 사회 문화적 담론

외모와 사적 목표의 성취에 집착하는 공주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됨에 따라 공주병에 관한 사회문화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담론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성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꾸미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적 규범이 되었다고 본다.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관한 이러한 문화적 관념을 동화책,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주로 내면화하고 있다. 동서양 모두 동화에 등장하는 여자아이들은 항상 외모가 묘사되고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정진경, 1986; Women on Words and Images, 1972).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외모를 가꾸는 여성의 항상 등장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사용되는 수많은 상품광고가 방영되고 있다.

심리학자들의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Rodin 등, 1985; Wooley & Wooley, 1980) 여성들이 외모가꾸기를 일종의 성취행동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날씬해지기 위하여 살을 빼는 것은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성공했을 때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여기게 되고, 그 결과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살빼기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패했을 때는 의지력 박약, 노력부족, 성격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아 성취행동이라는 관념을 강화하게 된다(고석주 · 정진경, 1992).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관념과 외모는 가꾸기 나름이라는 관념은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를 갖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이를 위하여 여성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끊임없이 사용하게 된다. 외모는 결혼과 연애 등의 남녀 관계 뿐 아니라 여성의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채용권한자인 남성들은 모델, 영화배우, 무용수처럼 아름다운 외모로 분명한 대가를 받는 직업이 아닌 비서업무, 판매업무 등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관련 직종에서 젊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들 뽑으려 한다. 제

조업 분야에서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식으로 외모를 중시하고 있다. 전문직조차도 여성에게 아름다움과 똑똑함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공주병을 강요하고 있다.

4. 공주병과 소비생활

공주병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92년 현재 53백만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제품에 36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한다(Silberner, 1992). 신체적 매력에 대한 관심은 운동과 건전한 식습관과 같은 긍정적인 소비행동 뿐 아니라 중독행동, 식사장애(eating disorder), 다양한 레이저 성형수술과 같은 부정적인 소비행동과 관계가 있다(Bloch & Richins, 1992; Hirshman, 1992; Schouten, 1991; Cash & Brown, 1987; Williamson 등, 1990).

Psychology Today 조사에 의하면 미국 여자의 38%, 남자의 34%가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자의 45%, 남자의 33%가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ash, Winstead, and Janda, 1986), 2백만의 미국 여성들이 단지 미용상의 이유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Brownell, 1991). 또한 의료계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좋아지게 하기 위하여 암시장에서 스테로이드 제품을 구입하고 있고, 백인 여성들이 선판을 한 결과 피부암이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50%나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Ralston, 1992).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5년간 성형전문의의 공급이 42.1배로 늘어나면서 다른 의료분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급팽창해 왔다. 이러한 성형외과의 증대와 날로 대중화되고 있는 성형 실태는 특이한 ‘한국적 풍토로 비쳐져 외국 언론의 특집 기사거리가 되거나 외국인들이 쓴 한국문화론 서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이다. 또한 신뢰할 만한 성형기술과 상대적으로 보편화된 성형 비용 때문에 대만이나 일본으로부터 성형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이 몰려들 정도로 한국사회에서는 성형이 보편화되어 있다(임인숙, 2002).

외모에 대한 관심은 소비자의 자아개념을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의복과 같은 외모 관련 상품의 수요를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Cash & Cash, 1982; Solomon, 1985, 1992). 개인적 성취도 제품소비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가 있다. 성취지향형 소비자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과시소비를 하고(Belk, 1985; Hirshman, 1990), 사적 성취 목표는 소비자 열망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Dholakia & levy, 1987; Mason, 1981).

5. 여자 중학생 소비자의 공주병과 체중

우리는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제시된 신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과 이상적인 신체상과의 사회적 비교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와 태도를 형성한다(이미란, 1997).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현재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구자명과 이명희, 1994; 이금룡, 1998). 여성에게 있어서 신체적 매력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원천일 뿐 아니라 심각한 협박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Freedman, 1986).

이렇게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가지게 된 여자 중학생들은 이상적 신체와 자신의 신체와

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체중조절 행동을 하며 부적절하고 지나친 체중조절 행동은 부적절한 섭식행동으로 이어지고 영양 불균형으로 여러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Higgins, 1991). 이러한 영양 불균형 가운데 여자 중학생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철결핍과 빈혈이다. 서울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34%가 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 등, 1997).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재 대중매체에서는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외모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체중이나 그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도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한다는 점이다(남상인 등, 199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2002년 8월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여자 중학교 2학년 학생 353명을 조사해서 이 중에서 빈혈과 철결핍으로 판명된 123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 일반사항 및 신체지수조사

조사대상자의 연령, 신장, 체중, 주거형태, 통학시간,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과 같은 일반사항은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평균신체중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신장(m)²로 산출하였다. PIBW(percent ideal body weight)는 이상체중에 대한 체중의 백분율이며, 이상체중은 Broca 변법인 {신장(cm)-100}×0.9로 산출하였다.

2) 공주병

공주병척도는 Netemeyer, Burton, Lichtenstein(1995)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여자 중학생의 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은 가능한 원 내용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약간 수정하였다. 척도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관련된 5문항,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6문항,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관련된 5문항,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을 주는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공주병 특성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공주병의 4개 차원과 체중, BMI, PIBW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나이 및 평균신장, 체중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나이는 13.3세이고 범위는 12~14세이다. 신장과 체중은 $157.67 \pm 5.44\text{cm}$ 및 $51.55 \pm 10.21\text{kg}$ 이었다. 평균신체중량지수(BMI)는 20.74 ± 3.54 로 정상 범위에 속하고, PIBW(percent ideal body weight)는 $99.68 \pm 16.96\%$ 이었다. 최주현 등(1997)에 의하면 여중생의 BMI가 20.2, PIBW는 106.7%로 측정된 바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신체적 특징(n=353)

	평균±표준편차	범위
나이(세)	13.38 ± 0.53	12 - 15
키(cm)	157.19 ± 5.57	125 - 175
체중(kg)	51.06 ± 9.42	28.0 - 95.0
BMI(kg/m^2)	20.63 ± 3.23	15.20 - 34.40
PIBW	99.46 ± 15.35	71.80 - 166.70

1) BMI : Body Mass Index

2) PIBW : Percent Ideal Body Weight, Ideal Body Weight = {키(cm) - 100} × 0.9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주거상태, 왕복통학거리, 월경시작여부, 월경시작연령 등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모두 중학교 졸업이 각각 57.7%, 62.6%로 가장 많았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조사학교가 있는 울산의 동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공업단지인 현대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게 나왔다고 생각된다.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61.8%로 나타났다. 주거상태는 단 한 명만이 하숙을 하고 있었다. 통학시간은 30분 이하가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분에서 1시간 이하로 25.2%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91.9%가 월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경을 시작한 나이는 12세가 5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3세로 21%를 차지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구분	빈도	%
아버지의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23	18.7
	중학교	71	57.7
	고등학교이상	112	13.8
	결측값	12	9.7
어머니의 교육수준	초등학교이하	23	18.7
	중학교	77	62.6
	고등학교이상	10	8.1
	결측값	13	10.6
어머니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76	61.8
	취업주부	42	34.1
	결측값	5	4.1
주거상태	자택	116	94.3
	하숙	1	0.8
	기타	6	4.9
왕복 통학시간	30분이하	81	65.9
	30분~1시간	31	25.2
	1시간~1시간30분	4	3.3
	결측값	7	5.7
월경여부	한다	113	91.9
	안 한다	5	4.1
	결측값	5	4.1
월경시작 연령	10	4	3.3
	11	6	4.9
	12	72	58.5
	13	26	21.1
	14	3	2.4
	결측값	12	9.8

2. 철결핍과 빈혈 여자 중학생 소비자의 공주병 특성

1)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35.4%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1.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나는 내 외모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많다”는 41.1%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8.1%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면 당황할 것이다.”는 평균이 2.6으로 가장 낮았고, “그저 그렇다”가 38.9%, “그렇지 않다”가 33.6%를 차지하

였다. “가장 좋은 모습이 되려고 하는 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평균이 3.7로 가장 높았고, 46.4%가 “그렇다”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그저 그렇다”로 25.0%를 차지하였다. “나한테는 항상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저 그렇다”가 42.9%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26.8%로 두 번째로 많았다.

<표 3> 철 결핍과 빈혈 여자 중학생 소비자의 공주병 특성

차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외모에 대한 관심	1.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	7.1	12.4	35.4	31.0	14.2	3.3	1.1
	2. 나는 내 외모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많다.	4.4	10.5	42.1	28.1	14.9	3.4	1.0
	3.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면 당황할 것이다.	13.3	33.6	38.9	12.4	1.8	2.6	.9
	4. 가장 좋은 모습이 되려고 하는 것은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2.7	7.1	25.0	46.4	18.8	3.7	.9
	5. 나한테는 항상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6.3	26.8	42.9	19.6	4.5	2.9	.9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	6. 사람들은 나의 매력에 주목한다.	14.4	38.7	39.6	7.2	.0	2.4	.8
	7. 내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필한다.	13.1	32.7	47.7	4.7	1.9	2.5	.9
	8. 사람들은 나의 좋은 모습을 부러워한다.	14.4	32.4	41.4	10.8	.9	2.5	.9
	9. 나는 매우 좋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다.	12.7	28.2	49.1	7.3	2.7	2.6	.9
	10. 내 신체는 성적 매력이 많다.	25.9	44.6	26.8	1.8	.9	2.1	.8
성취에 대한 관심	11. 내 신체는 사람들이 선망한다.	23.1	42.6	30.6	3.7	.0	2.1	.8
	12. 나는 자나깨나 성공만을 생각한다.	13.5	25.2	36.9	18.0	6.3	2.8	1.1
	13. 내가 성취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원한다.	10.9	24.5	40.0	20.0	4.5	2.8	1.0
	1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인으로 성공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	7.3	19.1	34.5	30.0	9.1	3.6	5.3
	15. 내 친구보다 더 성공하는 일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13.5	27.0	44.1	9.0	6.3	2.7	1.0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	16. 나는 내가 성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4.5	9.9	35.1	42.3	8.1	3.4	.9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성취한 것을 매우 존경한다.	8.1	27.0	55.9	6.3	2.7	2.7	.8
	18. 나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다.	13.5	40.5	36.0	8.1	1.8	2.4	.9
	19. 나는 성취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성공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1.9	26.6	41.3	16.5	3.7	2.7	1.0
	20.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10.8	21.6	45.0	18.9	3.6	2.8	1.0

2)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

“사람들은 나의 매력에 주목한다”는 “그저 그렇다”가 39.6%, “그렇지 않다”가 38.7%를 차지하였다. “내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필한다.”는 “그저 그렇다”가 47.7%로 가장 많

았고, “그렇지 않다”가 32.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사람들은 나의 좋은 모습을 부러워한다.”는 “그저 그렇다”가 41.4%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32.4%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나는 매우 좋은 모습을 지닌 사람이다.”는 “그저 그렇다”가 49.1%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28.2%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내 신체는 성적 매력이 많다.”는 “그렇지 않다”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26.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내 신체는 사람들이 선망한다.”는 “그렇지 않다”가 42.6%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30.6%로 두 번째로 많았다.

3)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

“나는 자나깨나 성공만을 생각한다”는 “그저 그렇다”가 36.9%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25.2%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내가 성취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원한다.”는 “그저 그렇다”가 40.0%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24.5%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인으로 성공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그저 그렇다”가 34.5%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30.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내 친구보다 더 성공하는 일이나 한테는 중요하다.”는 “그저 그렇다”가 44.1%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27.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나는 내가 성취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렇다”가 42.3%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35.1%로 두 번째로 많았다.

4)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성취한 것을 매우 존경한다.”는 “그저 그렇다”가 55.9%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27.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나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다.”는 “그렇지 않다”가 40.5%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36.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나는 성취한 것이 많다는 점에서 성공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그저 그렇다”가 41.3%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26.6%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많은 것을 성취하기를 바란다.”는 “그저 그렇다”가 45.0%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가 21.6%로 두 번째로 많았다.

<표 4> 공주병 4개 차원의 평균과 표준편차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
평균	15.8	14.2	15.3	10.7
표준편차	3.4	4.2	6.7	2.9
문항수	5	6	5	4

<표 4>에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 및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속하는 각각의 문항을 더하여 구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평균이 15.8로 척도의 중간점인 15점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그저 그렇다”로 해석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평균이 14.2

로 척도의 중간점인 18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평균이 15.3으로 척도의 중간점인 15점에 해당되므로 “그저 그렇다”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평균이 10.7로 척도의 중간점인 12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중간보다 낮게 나온 이 논문의 결과는 청년기 전기의 청소년들이 후기의 청소년들에 비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을 많이 느낀다는 선행연구(구자명과 이명희, 1994; 김혜원과 백화정, 1996)와 유사하다.

5) 공주병 차원간의 상관관계

<표 5>에는 공주병의 4 차원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및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상관관계의 크기는 낮은 수준이다($r=.24$). 그러므로 울산의 도시지역의 빈혈과 철결핍 여자 중학생들은 외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외모와 성취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상관관계의 크기는 낮은 수준이다($r=.28$). 그러므로 울산의 도시지역의 빈혈과 철결핍 여자 중학생들은 외모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수록 성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공주병의 나머지 3개 차원과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관계의 크기를 보면,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중간 정도($r=.40$)이고,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중간정도($r=.39$)이나,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r=.71$)를 보였다. 그러므로 울산 도시지역의 빈혈과 철결핍 여자 중학생들은 성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외모와 성취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외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구자명과 이명희(1994), 신체에 대하여 만족할수록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존중감이 높다는 김양진과 강혜원(199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고석주와 정진경(1992)의 연구에서 인용된 다음과 같은 인터뷰 내용도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준다.

“미스코리아로 뽑힌 여자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어서 젊은 여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 같다. ‘누구는 재와 미를 모두 갖추었는데 나는 이게 뭐람!’ 하고 푸념을 한 적 있다.”

성형수술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외모를 가지지 못한 여대생이 자살하면서 “집안도 좋고, 명문대에 다니는 내가 이렇게 아름답지 외모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예도 있다.

6) 공주병 차원과 체중

<표 5>에는 공주병의 4개 차원과 체중, BMI, PIBW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체중, BMI 및 PIBW 와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빈혈과 철결핍의 여자 중학생들은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수록 체중, 평균신체 중량지수 및 이상체중에 대한 체중의 백분율이 낮았다.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체중, BMI 및 PIBW 와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빈혈과 철결핍의 여자 중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체중, 평균신체중량지수 및 이상체중에 대한 체중의 백분율이 낮았다.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BMI 및 PIBW와는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체중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빈혈과 철결핍의 여자 중학생들은 성취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수록 평균신체중량지수와 이상체중에 대한 체중의 백분율이 낮았다.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BMI 및 PIBW와 $P<.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체중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빈혈과 철결핍의 여자 중학생들은 자신의 성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평균신체중량지수 및 이상체중에 대한 체중의 백분율이 낮았다.

자신의 실제 체중보다는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체중이 더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은 “날씬함 = 여성다움 = 행복”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씬하다 못해 마른 체격을 선호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빼고 싶은 신체 부위의 살이 자기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예를 들면 비계덩어리) 그것만 빼면 미래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Bruch, 1978). Rodin과 Stoddard(1985)는 이를 몸무게라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가 뚱뚱하다고 느낀 날은 우울한 날이고 새해를 맞는 결심은 살을 빼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표 5> 공주병 차원과 체중간의 상관관계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	1.00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	.24*	1.00		
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	.28**	.24*	1.00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	.40**	.71**	.39**	1.00
체중	-.24*	-.21*	-.19	-.18
BMI	-.24*	-.28*	-.24*	-.25*
PIBW	-.23*	-.29*	-.25*	-.26*

* $P <.01$ ** $P <.001$

V. 결 론

이 논문은 울산 도시지역의 빈혈과 철결핍 여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주병의 정도를 측정하고 공주병의 4 차원간의 상관관계와 4차원과 체중간의 상관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힌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울산 도시지역의 빈혈과 철결핍 여자 중학생들은 외모와 성취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중간 정도이고, 외모와 성취에 대한 평가 수준은 중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가장 좋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전문인으로 성공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이 성취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 등이 다른 내용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Medinnus와 Johnson(1976)은 청소년의 급속한 신체변화가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신체상을 가지게 하므로 청소년기 적응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빈혈과 철결핍의 여자 중학생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과 함께 소비자교육에서 가치관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공주병의 4개 차원들은 모두 의미있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성취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간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인은 머리가 나쁘다”라는 전통적인 문화관념과는 반대된다. 미인은 머리가 나쁘다는 관념에는 아름다운 여성은 생각도 없고 자기가 유일하게 지닌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자신을 책임질 남자를 찾는 일 이외에는 어떠한 야심도 없으며 스스로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남성지배 문화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이므로 남성들은 자기보다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남보다 아름다워 보여야 하는 동시에 똑똑하지 못한 척해야 한다는 믿음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석주와 정진경, 1992). 그러나 요즈음에는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 아름다우면서도 능력있는 여성은 선호하는 쪽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주병의 각 차원은 체중보다도 평균신체중량지수 및 이상체중에 대한 체중의 백분율이 더 의미있는 예측변수가 되었다. 성취에 관한 공주병의 두 차원은 체중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신체중량지수 및 이상체중에 대한 체중의 백분율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성들이 외모가꾸기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의 체중이 아니라 이상적인 체중이 더 중요한 준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춘기의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확산되는 이상적인 외모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도시 지역의 빈혈과 철결핍 여자 중학생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는데, 빈혈과 철결핍이 아닌 정상적인 여자 중학생 소비자와의 비교연구, 농촌 지역에 대한 조사 및 도시와 농촌 지역을 비교한 연구 등이 후속연구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고석주·정진경(1992).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8, 33-70.
2. 남상인 외(1993). 청소년 다이어트 행동 행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3. 구자명·이명희(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권 5호, 153-163.
4. 김양진·강혜원(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5. 김은실(2001). 여성의 건강/몸 관리와 육체 이미지의 소비문화.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

치학. 또 하나의 문화.

6. 쉴링, 크리스(Shilling, Chris)(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나남출판.
7. 이금룡(1998). 외모가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상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1호, 1-18.
8. 이미란(1997). Relationship of Body Image,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 esteem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임인숙(2002). 한국사회의 몸 프로젝트: 미용성향 산업의 팽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집 3호, 183-204.
10. 정진경(1986). 동화에 나타난 고정관념과 차별의 문제. 여성해장과 문학. 또 하나의 문화 3호. 평민사.
11. Appadurai(1990)
12. Bloch, P. & Richins, M.(1992). You look marvelous: The pursuit of beauty and the marketing concept. Psychology and Marketing 9(January), 3-15.
13. Belk, R.W.(199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December), 265-280.
14. Brownell, K.D.(1991). Dieting and the search for the perfect body: Where physiology and culture collide. Behavior Therapy. 22(Winter), 1-12.
15. Bruch, H.(1978). The Golden Age: The Enigma of Anorexia Nervos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6. Cash, Thomas F. & Brown, Timothy A.(1987). Body image in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A review of the literature. Behavior Modification. 11(October), 487-521.
17. _____ & Cash, Diane W.(1982). Women's use of cosmetics: Psycho-social correlate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4, 1-14.
18. _____, Winstead, B.A. & Janda, L.(1986). Body image survey report: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20(April), 30-37.
19. Choi, J.H., Kim, J.H., Lee, M.J., Moon, S.J., Lee, S.I. & Baek, N.S.(1997). An econological analysis of the iron statu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Nutrition 30(8), 960-975.
20. Dholakia, R.R. & Levy, S.J.(1987). The consumption dream in the United States: Aspiration and achievement in a changing environment. Journal of Macro-marketing 7(Fall), 41-51.
21. Durvasula, S., Lysonski, S. & Watson, J.(2001).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1), 180-199.
22. The Economist, Emerging market indicators : Vanity. 356, 09/02/2000, 98.
23. Freedman, R.(1986). Beauty Bound. London: Columbus Books.
24. Guber, S. S.(1987). The teenage mind. American Demographics 42(August), 42-44.
25. Hawkins, R.C. Jr., Turrel, S. & Jakson, L.J.(1983). Desirable and undesirable masculine and feminine traits in relation to students: Dietary and tendencies and body image dissatisfaction. Sex Roles 9, 705-724.
26. Higgins, E.T. et al(1991). Self-discrepancies and vulnerability to body dissatisfaction

- and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946-956.
27. Hirshman, E.(1990). Secular immorality and the American ideology of afflu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June), 31-42.
28. _____(1992). The conspicuousness of addiction: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mpulsiv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September), 155-179.
29. Mason, R.S.(1981). *Conspicuous Consumption*. New York; St. Martins.
30. Medinnus, G.R. & Johnson, R.C.(1976).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31. Netemeyer, Richard G., Burton, Scot & Lichtenstein, Donald R.(1995). Trait aspects of vanity: Measurement and relevance to consumer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 612-626.
32. Rodin, J. & Silberstein, L. & Striegel, M. R.(1985). Women and weight, in *Psychology and Gender*. ed. Sonderegger, T.B..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67-308.
33. Rodin, J. & Stoddard, P.(1985).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Weight and Eating. Unpublished Manuscript. New Haven: Yale University.
34. Ralston, J.(1992). Statistical Tanning. *Allure*(June), 82-85.
35. Richins, Marsha L. & Dawson, Scott(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36. Schouten, J.W.(1991). Selves in transition : Symbolic consumption in personal rites of passage and identity constr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March), 412-425.
37. Solomon, M.R.(1985).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
38. _____(1992). *Consumer Behavior: Buying, Having, and Being*.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39. Williamson, D.A., Davis, C.J., Duchman, E.G., McKange, S., & Watkins, P.C.(1990). *Assesment of Eating Disorders: Obesity,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New York: Pergamon.
40. Silberner, J.(1992). War for the diets. *U.S. News and World Report*(February 3), 55-60.
41. Wooley, S.C. & Wooley, O.W.(1980). The Bevery Hills eating disorder: The mass marketing of anorexia Nervosa.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 57-69.
42. Women on words and images(1972). *Dick and Jane as Victims: Sex Stereotyping in Children's Readers*. Princeton, N.J.: Author.